

불닭으로 쌓은 현금 공간... 삼양식품, 자본 배분 ‘시험대’

상반기 누적 매출 1조4847억
해외 매출 6458억... 46.7% 늘어
배당금 늘었지만 환원 높지 않아
내년까지 중에 8개 생산라인 구축

반짝 유행인 줄만 알았던 ‘매운맛 먹기 챌린지’는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았다. 불닭볶음면은 100여개국에 수출되며 일시적인 유행을 넘어 K-푸드의 주류가 됐다. 까르보불닭볶음면을 선물 받고 눈물을 흘린 미국 소녀의 영상은 조회수 1억회를 넘었고, 증시에서는 가파른 성장세를 빚대 삼양식품을 ‘불닭반도체’, ‘면비디아’라고 부르기도 했다.

삼양식품은 오리지널 불닭의 강한 매운맛을 유지하면서도 하비네로라임·스파이시·파라·푸앗퐁커리 등 지역별 입맛을 반영한 제품으로 시장을 넓혔다. 지역별 매출 비중은 중국과 미주가 각각 28%로 가장 높다. 불닭의 흥행이 일시적 유행을 넘어 현지화와 유통망 확대에 이어지면서 시장의 관심도 ‘얼마나 더 팔릴까’에서 ‘번 돈을 어디에 쓸까’로 이동하고 있다.

2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삼양식품의 2분기 연결 매출은 7703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39.3% 증가했다. 영업이익은 1762억원으로 46.7% 늘었고 영업이익률은 22.9%를 기록했다.

2분기 해외 매출은 6458억원으로 46.7% 증가하며 처음으로 6000억원을 넘어섰다. 미국 매출은 54.3%, 중국은 44.1%, 유럽은 61.0% 늘었다. 상반기 누적 매출은 1조4847억원, 영업이익은 3533억원에 달했다.

주가는 지난해 9월 11일 장중 기록한



삼양식품의 불닭볶음면 시리즈.

52주 최고가 166만5000원에서는 17.96% 내려왔다. 하지만 21일 종가가 136만6000원으로 여전히 한 주 가격이 100만원을 웃돌고 시가총액도 약 10조원에 달한다. 높은 기업가치를 유지하려면 불닭의 성장뿐 아니라 늘어나는 현금을 효율적으로 배분해야 한다는 요구도 커지고 있다.

◆**현금 늘었지만 中공장·차입금 고려해야**

6월 말 삼양식품의 현금및현금성자산은 6306억원, 단기금융자산은 1187억원으로 합계 7493억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말보다 3712억원 증가한 규모다. 상반기 영업활동 현금흐름도 2683억원으로 전년 동기 1292억원의 두 배를 넘어섰다.

다만 7493억원 전액을 여유자금으로 보기는 어렵다. 단기차입금 369억원, 유동성장기부채 2100억원, 장기차입금 3549억원을 합한 이자부 차입금은 6018억원이다. 상반기에는 약 1995억원의 회사채도 발행했다.

생산능력 확대에도 자금이 들어간다. 삼양식품은 상반기 유행자산 취득에 1033억원을 지출했다. 중국 저장성 자싱공장에는 약 2072억원을 투입해 2027년 1월까지 8개 생산라인을 구축할 계획이다. 중국

물량을 현지에서 생산하고 국내 공장은 미국·유럽 등으로 돌려 글로벌 수요에 대응한다는 구상이다.

증권가는 불닭의 성장 여력이 여전히 충분하다고 본다. 한화투자증권은 하반기 매출과 영업이익이 각각 32.0%, 41.7%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며 목표주가 180만원을 유지했다. 해외 판매법인에 쌓인 미판매 제품재고 약 415억원도 향후 매출로 인식될 여력이 있다는 분석이다.

한유정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성장투자와 주주환원을 아우르는 자본배분 정책의 구체화는 추가적인 밸류에이션 리레이팅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커진 배당금, 이익·주가 대비 환원은 아직**

삼양식품은 올해 중간배당을 주당 3200원으로 결정했다. 2025년 중간배당 2200원보다 45.5% 늘었고 배당금 총액은 241억원이다. 2025년 연간 배당금도 주당 4800원으로 2024년보다 45.5% 증가했다.

배당금은 늘었지만 이익과 주가를 고려한 환원 수준은 여전히 높지 않다. 지난해 연결 배당성향은 9.2%였다. 회사는 안정



삼양식품이 지난해 미국에서 진행한 ‘불닭 카우치 타임’(Buldak Couch Time) 이벤트. 삼양식품은 미국 LA 내 대형 쇼핑몰인 ‘웨스트필드 센추리시티’에서 팝업 스토어를 진행했다./삼양식품

적인 잉여현금흐름을 확보할 때까지 배당성향을 9~11%로 유지하고 주당 배당금을 점진적으로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21일 종가 136만6000원에 지난해 연간 배당금 4800원을 적용한 배당수익률은 약 0.35%다. 반기보고서에 기재된 최근 3년 평균 배당수익률도 0.6%에 그친다. 배당 확대 계획은 있지만 주주환원 목적의 추가 자사주 매입·소각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에는 보유 자사주 7만4887주를 약 994억원에 전량 매각했다. 해당 물량 대부분은 2022년 ‘주주 가치 제고 및 임직원 경영성과 보상’을 목적으로 취득했지만 회사는 투자재원 확보와 재무건전성 개선을 위해 처분했다. 당시 시장에서는 자사주를 소각하지 않고 투자재원으로 활용한 데 대한 비판이 나왔다.

올해 3월 삼성전자·현대차·기아·한국금융지주에 총 24억원을 투자했다. 삼성전

자와 한국금융지주에서 이익을 냈지만 현대차와 기아에서는 합계 1억5667만원의 평가손실을 봤다. 이를 반영한 전체 평가·처분이익은 약 3억2750만원이다. 투자액은 현금과 단기금융자산의 0.3%로 배당 여력을 좌우할 규모는 아니다. 다만 지난해 자사주를 전량 매각한 뒤 추가 매입·소각 계획을 내놓지 않은 상황에서 본업 외 금융자산 운용에 나선 만큼, 일부 주주 사이에서는 늘어난 현금의 우선순위를 주주환원에 뒤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불닭의 해외 성장성과 중국공장 투자는 삼양식품의 높은 기업가치를 뒷받침하는 요인이다. 앞으로는 성장투자가 추가 이익으로 이어지는지와 함께 늘어난 현금을 설비투자 외 금융자산 운용, 주주환원에 어떤 기준으로 나눌지가 추가 재평가를 가를 전망이다.

/허정윤 기자

zelkova@metroseoul.co.kr



metro

거래 반토막에도 코스피 ‘지수 착시’ 심화

거래대금 지난달보다 10조 이상 감소
반도체 대형주 중심으로 지수 반등

코스피 거래대금이 올해 고점 대비 50% 가까이 둔화하며 시장의 활력이 크게 꺾였지만, 지수의 폭등락 장세는 오히려 찾아들지 않고 있다. 증시 상승을 이끌던 개인마저 관망세로 돌아선 가운데 지수는 올랐어도 전체 상장 종목의 85%는 제자리걸음을 걷는 ‘지수 착시’ 현상이 극대화되고 있다.

2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8월 일평균 거래대금은 약 26조5314억원으로, 지난달이었던 7월(42조9928억원) 대비 10조원 넘게 줄어들었다. 올해 들어 일평균 거래대금이 30조원을 하회한 것은 1월(27조560억원) 이후 처음으로, 연중 최저치를 기록했다. 지수가 가파르게 상승하며 일

평균 거래대금이 50조원을 넘어섰던 5월·6월보다는 약 47% 급감한 수치다.

노동길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코스피 200 변동성지수(VKOSPI)는 6월 고점(96.94)보다 낮아졌지만 절대 수준은 여전히 높다”며 “높은 변동성은 같은 기대 수익에도 감수해야 할 위험을 키워 주요 투자자의 위험예산 확대를 제약한다”고 짚었다.

가장 큰 수급 변화를 보인 것은 개인 투자자다. 이들의 코스피 순매수 규모는 5월 35조943억원, 6월 42조4005억원에 달했으나, 7월 들어 5조3715억원으로 급감한 데 이어 8월에는 약 2조7474억원 수준에 그쳤다.

증시 전반의 유동성이 둔화한 가운데, 코스피는 반도체 투톱에 의해 크게 좌우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코스피가 5500

선까지 주저앉았던 지난달 30일부터 이날까지 지수가 반등하는 과정에서 지수 상승분의 66% 이상을 반도체 두 종목이 견인했다. 같은 기간 코스피는 23.9% 상승했으나, 코스피 상승률을 웃돈 종목은 전체의 15.0%(141개)에 불과했다. 상장 종목 10개 중 8개 이상(85%)이 지수 상승 폭을 따라가지 못하면서 대형주 위주의 착시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이상현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코스피 시장은 결국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두 종목이 시장 방향성을 결정짓는다”며 “코스피 전체에서 두 종목이 차지하는 순이익 비중은 70% 수준이고, 시가총액 비중은 50%, 거래대금 비중은 53%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가 시장 전체를 거의 대부분 대변한다”고 설명했다.

/신하은 기자 godhe@

예탁원, 외국인 ‘원스톱 파이낸싱’ 첫 계약

국채통합계좌 하나로 보관·파이낸싱

한국예탁결제원은 외국인 투자자와 ‘KSD 원스톱 파이낸싱 서비스’ 제공을 위한 첫 계약을 체결했다.

23일 예탁결제원에 따르면 해당 서비스는 예탁결제원이 외국인 투자자의 보관기

관·상임대리인 역할을 맡아 국채통합계좌와 연계해 환매조건부매매(Repo), 장외 파생상품 담보, 증권대차(SLB) 등 증권과 이낸싱 거래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그동안 국내 상임대리인 없이 국채통합계좌만 이용하는 외국인 투자자는 증권과 이낸싱 거래를 위해 별도의 계좌를 개설

해야 하는 등 불편이 있었다.

이번 서비스 도입으로 외국인 투자자는 별도 국내 보관기관을 선임하지 않고도 예탁결제원에 개설한 하나의 계좌에서 국채 보관과 파이낸싱 거래를 함께 처리할 수 있게 됐다.

이번 계약은 예탁결제원이 외국인 투자자의 중앙예탁결제기관(CSD) 에이전트로서 국내 담보거래를 지원하는 첫 사례다.

/허정윤 기자

상품권 미끼로 계좌 빼앗는 보이스포싱

금감원 Q&A

“상품권 구매하면 대출 가능” 속여
통장·카드 넘겼다면 거래중지 요청

“상품권 구매실적을 쌓으면 대출이 가능합니다.” 이런 말을 듣고 체크카드를 넘겼다가 자신도 모르게 보이스포싱 범죄에 연루될 수 있습니다. 최근 보이스포싱 조직이 대출을 미끼로 확보한 계좌에 다른 피해자의 돈을 입금받은 뒤 상품권으로 세탁하는 신종 수법이 확인돼 주의가 필요합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사기범은 저축은행 등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해 신용점수가 낮거나 대출이 어려운 사람에게 접근합니다. 카드 사용실적이 부족해 대출이 거절됐다면 상품권을 반복 구매하면 대출 한도를 받을 수 있다고 속인 뒤, 대신 상품권을 사주겠다며 통장과 체크카드를 요구합니다.

피해자는 돈을 직접 건네는 것이 아니라서 의심하지 않을 수 있지만, 이렇게 확보된 계좌는 다른 보이스포싱 피해금을 받는 대표통장으로 악용됩니다. 통장이나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넘기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고 넘겼다면 사기죄 공범으로 처벌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보이스포싱 조직이 상품권 구매실적을 빌미로 대출을 유도하는 신종 금융사기 수법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이미지. /ChatGPT로 생성한 이미지

계좌를 확보한 사기범은 다른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대출을 제안합니다. 이후 기존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한 공범이 기존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신규 대출을 받는 것은 법이나 약정 위반이라며 원금을 즉시 상환하라고 압박합니다. 이때 상환 계좌로 앞서 확보한 개인 명의 계좌를 안내합니다.

피해금이 입금되면 수거·인출책은 대형마트 무인 키오스크 등에서 상품권을 대량 구매합니다. 상품권은 다시 현금화되고 가상자산으로 환전돼 해외 총책에게 전달됩니다. 피해금이 불과 몇 분 만에 상품권으로 바뀔 수 있어 신속한 대응이 중요합니다.

금감원은 상품권 구매실적을 쌓으면 대출이 가능하다는 안내는 100% 보이스포싱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제도권 금융회사는 대출 심사를 위해 특정 물품의 구매실적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허정윤 기자